

'서울도서전' 개막, 책의 해 미리 연다

지난 2일 올림픽공원서 "책과 함께 미래사회를 위하여" 주제로



'92서울도서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도서전의 모습.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문화방송이 주최하는 '92서울도서전이 지난 10월 2일개최, 오는 8일까지 1주일간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서 계속된다. 총1천833평에 달하는 전시장을 마련 전시되고 있는 이번 서울 도서전은 내년이 '책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책의 해'에 대한 홍보활동도 겸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책의 해' 개막식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서울 도서전은 '책과 함께 미래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식과 정보 전달매체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데 전시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특이하게 눈길을 끌고 있는 전시종목은 기존 종이책의 개념을 뛰어넘는 컴퓨터 신기술의 전자출판시스템. 미래의 책을 보여주는 '전자출판플라자'와 문자, 소리, 화면을 결합시킨 음반 또는 VTR 등을 도서와 함께 상품으로 전시하고 있는 '음상도서 전시대'는 일반 독자 뿐만 아니라 출판 전자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눈길을 끌고 있는 특별 전시기획 행사로는 '임진왜란 4백주년 도서전' '세계우수편집, 디자인상 수상도서전' '외국에서 번역출판된 국내도서전' 등이 있다. 임진왜란의 올바른 성격과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마련한 '임진왜란 4백주년 도서전'은 전란 당시의 책과 현대의 임란관계문헌을 5부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또 세계저작권 조약 5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외국에서 번역, 발행된 국내도서전'은 서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시에 열리는 기획전이다. 이외에도 출판시장 개방에 대비한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의 하나로 시행중에 있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와 판매시점정보관리제도(POS)를 이용하여 출판사와 서점들이 어떻게 수수 발주 및 업무관리 재고관리 등을 수행하는지 실례연출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이밖에 이번 행사에는 사별, 종합출판물, 잡지, 전자출판, 홍보, 특별기획전시대를 마련 각각의 특징을 전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눈길을 끌고 있는 특별 전시기획 행사로는 '임진왜란 4백주년 도서전' '세계우수편집, 디자인상 수상도서전' '외국에서 번역출판된 국내도서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출판시장 개방에 대비한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의 하나로 시행중에 있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와 판매시점정보관리제도(POS)를 이용하여 출판사와 서점들이 어떻게 수수 발주 및 업무관리 재고관리 등을 수행하는지 실례연출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이밖에 이번 행사에는 사별, 종합출판물, 잡지, 전자출판, 홍보, 특별기획전시대를 마련 각각의 특징을 전시하고 있다.

공보처, 우수잡지 선정 시상

공보처는 잡지언론의 발전과 건

전한 잡지의 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우수잡지를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 실시한다.

매년 종합지 3종, 전문지 7종 등 모두 10종의 우수잡지를 뽑아 '우수잡지 선정증'을 수여한다. 신청자격은 정기간행물 등록 후 발행기간이 3년 이상인 잡지이며 법정 발행실적을 유지한 유가지로써 월간, 격월간, 계간지에 한다. 그러나 외국출판물번역잡지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일까지이며 문의는 공보처 잡지과(720-4963)나 한국잡지협회(738-7329)로 하면 된다.

범우사 독후감현상공모 시상식

범우사는 지난 9월 26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창업 26주년 기념식을 갖고 범우출판장학회 장학금 수여식과 제7회 독후감현상모집시상식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수여되는 범우출판장학회 장학금은 윤세민씨(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의 9명이 수혜자로 선정됐다.

또 독후감 수상자는 대학 일반부에서 이우화씨(서울시 노원구)가 금상을 차지했고 은상은 강형순씨

(경남 창원)가 차지했다. 고등학생부 은상은 안치황군(청주고 2), 중학생부 금상은 김세림(장위중 1), 국민학생부 은상은 한소운(하남중앙국교 6)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부문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부상이 수여됐다.

조정래씨 「태백산맥」 일본서 출판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다. 조씨는 지난 9월 7일 일본의 출판사인 집영사 관계자들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어 번역출판에 대한 협의를 갖고 94년부터 5년 이내에 전 10권을 순차적으로 완역, 출간하기로 합의했다.

조씨와 집영사간의 거래조건은 312만5천엔의 원작료를 작가가 먼저 받고 인세는 책정가의 6~8%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강공원에 야외독서실 등장

부산 금강공원안에 책을 빌려주는 '공원야외독서실'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독서실은 지난 7월 25일부터 36일간 새마을문고 동래지부가 올바른 피서문화 정착을 위해 피서지 새마을문고를 설치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공원관리사무소가 운영을 맡아 계속 문을 열고 있다.

공원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을 겸한 이 야외독서실은 새마을문고 동래지부와 공원 관리소 직원들이 기증한 3천여권의 각종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열람석도 20석 마련돼 있다. 현재 이 독서실은 공원관리사무소 직원 10여명이 윤번제로 책임자를 선정, 관리를 맡고 있으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만 제시하면 누구든지 3권까지 책을 무료 대출할 수 있다.

이 독서실은 하루 평균 50여명이 찾고 있으며 관리소측은 플래카드 설치와 안내방송을 통해 독서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천문관계전문잡지 「하늘」 창간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잡지인 월간 「하늘」이 창간됐다.

도서출판 가람기획이 지난 9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 잡지는 현재 약 5천대의 천체망원경이 보급돼 있는 국내 아마추어 천문계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간호에는 집중관측 특집으로 안드로메다와 이중성을 관측하는 요령과 함께 직접 망원경을 만들고 자 하는 독자를 위해 반사경을 연마하는 방법이 실려있다. 이밖에 국내 아마추어들이 찍은 천체사진, 9월의 천문현상 등이 실렸다.

국내도서 235종 해외에서 번역출판

대부분 美日서... 「세계는 넓고...」는 9종이나 번역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는 세계저작권조약(UCC) 가입 5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국내도서 출판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국내도서는 모두 235종으로 UCC 가입 이전에 122종, 그 이후에 113종이 출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도서가운데 해외에서 가장 많이 번역, 출판된 것은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싱가포르,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헝가리 등에서 6개국어 9종이 출판됐다. 이밖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4개국

어 6종, 이기백의 「한국사신문」이 4개국어 7종, 노진화씨의 「한국요리」가 2개국어 5종, 백낙청씨의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이 1개국어 5종으로 번역 출판됐다.

국가별 출판추이를 보면 일본과 미국에서의 출판이 각각 85종, 70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에서의 출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야별로는 문학분야의 도서가 142종이나 외국에서 번역, 출판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역사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폴리먼트연구소 독서경향 조사

독자들이 책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책의 내용'이고

즐거 읽는 장르는 소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여론조사기관인 폴리먼트연구소가 최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30대 성인남녀 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책선택 기준에 있어서 '책 내용을 보고' 책을 선택한다는 응답자들이 76.4%로 가장 많았고 '작가를 보고 선택한다' 12.6% '제목'이 8.3% 등으로 밝혀졌다. 즐겨 읽는 책으로는 소설이 54.4% 수필 19.1% 잡지 14.7%의 순으로 나타나 소설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 이산문학상 시상식

문학과 지성사(대표 김병익)가 주관하는 제4회 이산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9월 22일 프레스센터 20층 멤버스클럽에서 거행됐다.



제4회 이산문학상 시상식.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단 관계인 사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산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정현종(「꽃 한 송이」)씨와 소설가 홍성원씨(「먼동」)에 대한 상패와 창작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문화연구소 학술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소장 이상택)는 지난 9월 24일 제50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연변대학 조선어언문연구소의 최允甲교수가 「史讀에 잔존한 一部 漢語 上古音」을 발표했다.

‘한독문학번역연구소’ 17일 발족

독문학자 김승욱교수(연세대 독문학)가 독문학 번역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연구하기 위해 ‘한독문학번역연구소’를 발족했다.

연구소의 이사로는 한국외대 하이디 강교수, 홍익대 고위공교수, 서울대 안삼환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첫번째 사업으로 오는 10월 17일 홍익대에서 「한독문화교류와 번역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연구소 개소식도 가질 예정이다.

과학연구단체 공동심포지움 개최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한국과학사학회, 철학연구회가 공동주최한 「과학철학과 과학사」에 대한 심포지움이 지난 9월 24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열렸다.

방송통신대 이필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김국태교수(호서대, 철학)의 「특수상대이론적 동시성 개념의 인식론적 의미」외에 5명의 발표자들이 참가했으며 이중권교수(중앙대 철학) 등

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잡지의 날 기념표어 수상작 발표

한국잡지협회(회장 김수달)는 잡지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기념표어 현상공모에서 최정숙씨의 ‘잡지읽는 생활 속에 보람 찾는 밝은 내일’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잡지협회는 지난달 잡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표어를 공모, 193편의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작 이외에도 우수작으로 ‘잡지문화 꽃피워서 정보사회 열매맺자’(이선교) 가작으로 ‘내가만든 좋은 잡지, 사회 얼굴 나라 얼굴’(안화균) ‘잡지는 현대인의 건전한 휴식공간’(지창영)을 각각 뽑았다.

현암사 「어린이 숲과 나무」 발간

도서출판 현암사(대표 조근태)

는 어린이용 부정기 문화교양지 「어린이 숲과 나무」를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꼬마환경운동가 이완’이 표제기사로 실렸으며 ‘어린이가 지구를 살리는 51번째 방법’으로 우수책의 재생 방법이 소개돼 있다. 365-5056

파랑더, 출판사관리프로그램 개발

도서출판 파랑더 전산개발부가 출판사 종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국내 출판사 실정을 감안, 출판사의 업무를 퍼스널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일반적인 판매,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POS시스템을 이용한 도서관리를 할 수 있고 거래처 및 서점 관리 등도 할 수 있다.

우리어문 바로잡기협, 공개토론

우리어문바로잡기운동범국민협의회(의장 윤길중)는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승동 한국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토론에서는 남광우한국어문회장, 진태하교수(명지대)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전자출판협회 제1회 워크샵 거행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허창성)는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전자출판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1회 워크샵을 거행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전출협이 나아가길」 「CD-ROM개발과 공급현황」 등에 관한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정신적 뿌리 우리의 고전을 읽자”

제38회 독서주간 맞아 도서관협회 등서 다양한 행사

한국도서관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을 제38회 독서주간으로 정하고 ‘정신적 뿌리, 우리의 고전을 읽자’는 주제 아래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출판협회는 독후감상문 당선자 표창, 모범독서운동가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했으며,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는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각급 도서관에서

통해 전자출판산업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출판유통 도서창고 기공식

(주) 서울출판유통(대표 최선호)이 지난 9월18일 출판·서점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천에서 도서창고 및 사육기공식을 가졌다.



(주) 서울유통은 지난 9월18일 이천에서 창고기공식을 가졌다.

서울출판유통은 8천1백평 대지에 내년 2월말까지 1천3백평 규모의 유통창고를 1차로 완공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하게 된다. 2천4백평 규모의 도서보관창고공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지를 예정이다. 서울유통은 1차로 유통창고가 만들어지면 30~40개의 출판사를 입주시켜 이들 출판사책을 전국 서점에 배분·배송하는 일을 즉시 대행할 수 있게 된다. 2차 창고 건립이 끝나면 입주출판사가 1백~1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고전읽기 경연대회, 도서관 견학 및 현장학습, 독후감쓰기대회, 독서퀴즈대회를 열어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을 진작시켰다.

강릉에 어린이서점 ‘초방’ 개장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 대상 전문서점을 열어 호응을 받았던 ‘초방’(서대문구 대신동 91-7)이 서울에 이어 강릉에서도 문을 열었다.

지난 8월1일 개장한 강릉 초방은 13평 정도의 크기에 외장이나 내부 구조가 서울 초방과 흡사한데,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책을 꺼내보고 선택할 수 있게 의자나 탁자도 어린이용으로 구비했다. 0세~국민학교 6학년까지가 주대상이고 어머니들을 위한 육아서도 갖추고 있다. 연령별로 서가를 구분하여 꾸며 어린이 및

부모들의 책선택이 용이하도록 배려한 점이 이들 어린이 전문서점의 공통된 특징. 강릉시 포남동 1223번지. 0391-647-4559.

윤동주 시비, 중국 용정중에 건립

윤동주시인의 시비가 지난 9월 23일 길림성 용정시의 용정중학교 교정에 건립됐다.

해외한인민족연구소 및 동아일보 용정중학교가 공동으로 건립한 높이 5미터의 시비에는 윤동주시인의 ‘서시’ 전문이 새겨져 있다.

예영출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예영기독교출판아카데미는 편집인 재교육과정을 마련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독교출판사에서 1년 이상 재직 한 중급편집자들에게 편집실무전반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이번 강좌의 모집인원은 30~40명이며, 교육기간은 10월8일부터 11월27일까지 2개월간이다. 수강료 15만원. 문의전화 276-1417.

고침

지난 9월5일자 112호 뉴스면 ‘브리태니카 한글판 발행’ 기사에서 ‘85년에 나온 영문판’을 ‘92년 영문판’으로 고칩니다.